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Korea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성평등, 교실에 닿다:
다양성과 예민함을 배우는 교실 꿈꾸기

김수진 초등학교 교사,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교사

모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시작하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교육

황고운 초등학교 교사,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교사

성평등, 교실에 닿다:
다양성과 예민함을 배우는
교실 꿈꾸기

김수진

초등학교 교사,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교사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오늘도 체육관에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저 말. 학생들을 두 줄로 정렬시키기 위한 체육 선생님의 외침이다. 못 들은 체하며 지나가 보려 하지만 두 줄로 열 맞춰 ‘보기 좋게’ 선 학생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힌다. ‘젠더 갈등’이라 말하는 문제의 시작이 사실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은 아닐까 생각하며.

학교는 성별 구분이 강화되는 장치로 가득하다. 1학년 학생들은 하나같이 핑크색 가방과 파란색 가방을 멘 채 학교로 등교한다. 운동장에 떨어져 있는 신발주머니를 보면 여학생 것인지 남학생 것인지 99% 추측할 수 있다. 학교에서 나누어 주는 스케치북에도 여아용, 남아용이 따로 있다. 문구 도매처에서 이미 그렇게 보내 주기 때문에 문제점을 인식할 틈 따위는 없다. 여아용 스케치북을 받은 한 학생은 크레파스를 집어

들고 자신의 꿈을 그려 본다.

‘시민을 지키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그림을 본 친구들이 한마디씩 던진다. “너 도둑 잡을 수 있어? 달리기 엄청 빨라야 해.”, “네가 도둑보다 힘세?” 학생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교사가 지나가며 한마디를 더한다.

“여자에 글씨가 이게 뭐니? 또박또박 예쁘게 써야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교실 속 장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매 순간이 젠더 구분과 맞서야 하는 번민의 현장이다. 하지만 일일이 지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 학교, 성별 구분이 강화되는 공간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는 교대에서 배운 4년의 교과 과정보다 십수 년 동안 학교에서 보고 자란 행태를 따라하기 급급했다. 그러니 출석 번호가 남자 1번, 여자 31번부터 시작하는 건 당연했다. 게시판에 붙일 작품 이름표를 일일이 만들어 붙일 때도 굳이 분홍색과 파란색 두 색으로 나누어 만들었다. 보호자들은 상담 때마다 “우리 애가 여자애들하고만 놀아서 고민이다.”라든지, “남자애가 너무 소심해서 걱정이다.”라는 말들을 풀어 냈고, 나도 진심으로 걱정했다. ‘같은 동성 친구와 못 어울리면 안 되지, 남자애가 소심하면 사회생활 못하지.’라며. 나의 성별 구분 사례를 풀어 놓으려면 사흘 밤낮을 새도 부족하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런 와중에도 여자애들끼리, 남자애들끼리 무리 지어 노는 모습은 또 싫어했다는 거다. 남녀 짝을 지어 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졌고, 모둠을 구성할 때도 남자 셋, 여자 셋 비율을 맞춰야 좋은 협동 학습의 모델이라 믿었다. 그렇게 교실은 여자와 남자, 단 두 가지의 이름표만 존재하는 듯했다. 성

별을 이용해 끊임없이 학생들을 분류하고 구분했다.

여기까지 읽고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

교실이 이분법적 사고로 성별 구분을 강화하는 곳이라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그게 문제라고 인식하는 건 또 다른 일이다. 출석 번호가 남녀로 구분된 점을 문제 삼자 다음 해부터는 출석 번호를 여학생이 1번, 남학생이 31번인 것으로 바꾸겠다는 해답을 듣고 머리를 싸맸다. 남녀로 나누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냥 구분일 뿐인데 왜 차별이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던 부장님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학생들은 으레 여자 친구들끼리, 남자 친구들끼리 무리 지어 논다. 이 무리 짓기에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선생님 남자애들이 때려요~”, “아니예요, 여자애들이 먼저 욕하고 도망갔어요.”라며 편 가르기. 둘째, 다른 이성과 친한 학생에게 “너 재 좋아하냐?” “너네 사귀냐?”는 말로 놀리기. 셋째, 동성 집단이 아닌 이성 집단과 노는 학생을 “저 XX 게이 같아.”라며 무리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첫 번째 특징은 구분된 성별 범주를 통해 내가 속한 그룹을 편애하고

나와 다른 그룹은 배척하는 현상이다. 그 안의 개개인을 칭하는 것이 아닌 ‘남자애들’, ‘여자애들’이라며 그룹화하는 말은 교실에서 굉장히 자주 들린다. 예를 들어 “여자애들이 자꾸 때려요!” 라는 말에 속하는 여자애들은 전체 15명 중에 3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들은 수진이 다숨이 지윤이가 아니라 ‘여자애들’이라고 명명된다. 나와 다른 성별을 싸워 이겨야 하는 다른 팀처럼 여기며 그렇게 교실은 점점 반으로 갈라진다.

두 번째 반응은 관계 맺기와 관련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남녀 간의 친밀함은 ‘애인’일 때만 형성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남녀 간에 친구가 어디 있냐는 이성애 중심의 고정관념은 차치하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상황 자체가 배제된다. 친구로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서로 좋아하거나, 짝사랑하는 ‘대상’으로 상대를 인식한다. 이는 일상적인 성적 대상화가 전제되는 말이기도 하다. 상대방의 가치를 연애가 가능한지 아닌지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특징은 성 소수자 혐오와 함께 왜곡된 남성성(혹은 여성성)의 문제가 함께 드러나는 상황이다. ‘게이 같다’는 말은 남자끼리 놀지 않거나 일반적인 ‘남성성’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집단에서 배척하는 용어로 사용된다(그 학생의 실제 성적 지향과는 상관없이 칭해진다). 일반적인 남

성성,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거나 잘해야 하고, 남자들끼리 무리 지어 물려다니며,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거나 함께 음란물을 공유하는 형태의 끈끈한 우정에 공감·동조하지 않는다면 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성별로 무리 짓기는 성별 구분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이며 이 범주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를 사회화시킨다. 여자아이는 더 ‘여자아이’처럼, 남자아이는 더 ‘남자아이’처럼 자란다. 작은 차이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벽으로 자라난다. 사소하게 생각한 성별 구분은 성역할이 되고, 차별이 되고, 혐오가 된다.

■

OUTSIDE OF THE BOX, 고정관념 깨기로 시작하는 성평등

반으로 갈라진 교실을 보며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사실은 내가 경험한 차별을 학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 차별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답습하는 교실을 보며 시급한 문제라 생각했다. 그렇다고 만 12세 이전의 어린이들에게 사회구조적 억압과 권력 관계를 논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이제 겨우 우리 동네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 3학년에게, 인권이라는 단어가 뭔지 처음 배운 5학년에게 젠더 불평등과 부정의함을 어떻게 논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로 인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차별은 성별 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꼭 필요했다.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토론하는 교실을 상상했다.

그래서 조금은 단순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학생 입장에서 주변의 고정관념이나 차별을 인식하고 조금 더 예민하게 바라보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 고정관념을 깨고, 젠더 감수성을 기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수업을 만들기로 했다.

아웃박스는 이 같은 고민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 5명이 모여 만든 교사 모임이다. 성평등 교육을 정의하고, 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하며 활동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어 간다. 아웃박스라는 이름에 교육의 목표이자 목적이 담겨 있다. 박스에서 벗어나 성 고정관념을 깨고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 더 나아가 단단한 세상을 향해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문제를 던지며 균열을 만들어 내는 시민이 되는 것.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서도 성평등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성평등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며, 성평등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육...”¹⁾

1)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제2조. 제2항. <https://www.law.go.kr>

너무 당연한 내용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 뻔한 내용마저도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이다. 사회에서는 학교 밖에서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끊임 없이 ‘교육’이 해답이라 말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는 연간 51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3학년의 생존 수영이 필수 교육 시간으로 확보되었다(참사가 학생들이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6학년 실과 시간에는 코딩 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 자살예방 교육, 영양 교육, 인터넷중독예방 교육, 학생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노동인권 교육, 장애인식 교육, 환경 교육, 독도 교육까지. 각종 법령과 자치 법규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하라며 교육과정에 옥여넣는다. 하지만 이 많은 교육 중에 놀랍게도 성평등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갈등 요소로 취급하며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온다.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성평등 교육이 세뇌고 사상 교육이라며 절대 악 취급을 한다. 국민 청원에는 성평등 교사 모임의 배후가 수상하다며 ‘페미니즘을 주입하는’ 교사 단체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온다. 배후 없이는 저런 ‘이상한’ 교육을

절대 할 리가 없다는 거다. 그 배후로 전교조와 여가부를 언급한다. 얼
토당토않은 이 청원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다. 이게 성평등
교육의 현실이다.

■ 성평등 교육, 언제 해요?

성평등 수업을 한다고 하면 매번 받는 질문이 있다. 성평등 교육 시간은 어떻게 확보하냐는 것이다. 사실 수업 자체보다 수업 시간 확보와 운영 방안이 더 어려울 때가 많다.

공교육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이 이루어진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와 범교과 학습 주제로 나뉜다. 먼저 교과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과별 성취 기준을 통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제시된다. 예를 들어 5·6학년군 국어 읽기 영역에는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성취 기준에 따라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수업이 진행된다. 초등학교 교과별 성취 기준에서 ‘양성평등’,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국어 시간에도, 사회 시간에도, 도덕 시간에도 공식적으로 성평등을 주제로 수업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뜻이다. 인권이나 가족을 다루는 성취 기준을 통해 성평등을 ‘자연

스럽게 녹여서' 가르쳐야 하며, 실제로 성취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시간이라도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적다.

2015 교육과정 중 범교과 학습 주제

주제	관련 내용 요소
안전·건강 교육	안전·재난 대비, 보건·성 교육, 영양·식생활
인성 교육	전통 윤리(효도, 경로), 생명 존중
진로 교육	진로 탐색, 여가 활용
민주 시민 교육	청렴·반부패, 헌법정신 및 법 질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인권 교육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아동, 청소년, 장애인, 양성평등 , 노동 인권 등), 폭력 예방
다문화 교육	다양성의 존중, 세계시민 및 국제 이해
통일 교육	통일 필요성 이해, 국가 정체성 이해(한국 문화사 교육), 호국 보훈
독도 교육	국토 이해, 독도 사랑
경제·금융 교육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창업(기업가) 정신, 복지와 세금·금융 생활의 이해, 지적 재산권
환경·지속 가능 발전 교육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 물 보호 및 에너지, 해양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²⁾

2) https://www.edunet.net/nedu/ncicsvc/listTchBoardForm.do?boardNum=30&menu_id=712

걸리기도 한다. 성평등 교육을 하기 위한 수업 재구성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인 교실에서 성평등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사들이 모여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수업 중에 나누고 싶은 수업 몇 가지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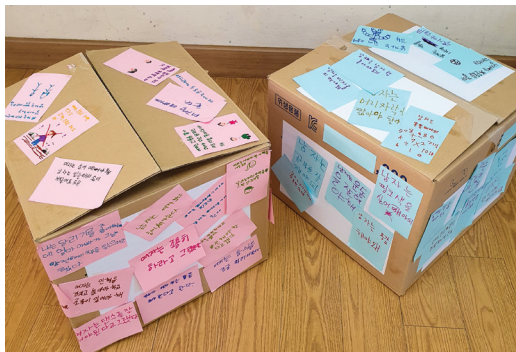
예민함을 배우는 성평등 수업

첫 번째 수업, 박스 열기

초등학교 성평등 교육의 목표는 성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성인지감수성을 함양하는 데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수업 주제는 ‘성 고정관념 인식하기’이다. 학생들은 이미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이 당연함을 깨고 내 안의 박스를 열기 위한 작업은 성평등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필수 작업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들은 아직도 성별 구분과 고정관념 가득한 말을 들으며 자란다. 어떤 말들을 들어 왔는지 고정관념 박스를 실제로 만들어 보기 위해 학생들이 들은 말들을 적어 성별 박스에 붙여 보니 대형 박스 걸면을 가득 덮고도 남았다. 붙어 있는 말들은 보호자를 통해, 학교나 학원 선생님을 통해, TV나 유튜브 등의 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 된 것들이었다. 제도적으로는 차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적으

로는 아직까지 성별 구분에 의한 성역할과 차별이 존재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고정관념을 습득한다.



고정관념으로 뒤덮인 박스 겉면



학생들이 듣고 싶은 '나다운' 말들이 담겨 있는 박스 안쪽 면
출처: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다. 박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될까,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그리고 학생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직접 적어 박스 안에 붙였다. 박스를 열고 나오기 위해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사유하는 일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나다움’이 보이는가?

박스만 볼 때에는 그 안의 내용물이 모두 같을 것이라 쉽게 판단해 버리지만, 사실 박스 안에는 가지각색의 다채로움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나는 얌전한게 싫다. 여자라고 소리지르지 말라는 것도 싫다.’라고 적어 박스 안에 담았다. 우현이는 ‘남자는 울어도 돼.’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렇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본인이 가장 편안할 때는 언제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이 수업으로 위계와 억압에서 벗어나 ‘나’를 인식하는 순간이 되길 바랐다.

성 고정관념 인식하기 수업 하나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보였다. “남자가 무슨 핑크냐?”, “여자는 운동을 못하지.” 같은 말은 점차 줄어들고 “그건 고정관념이야.”라며 서로의 말을 점검한다.

두 번째 수업, 집안일은 누구의 일인가요?

서로에게 붙어 있던 성 고정관념이라는 이름표를 인식했다면, 이 이름표로 성역할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알아본다. 전통적 성역할 과업이 수행되는 가정을 통해서 말이다. 코로나 시대에 재택 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이 확대되면서 가사 노동은 더욱 늘어났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은 바뀌지 않았다. 특히 외벌이 가정의 경우 집안일은 온전히 주부인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 인식은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실제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외벌이인 가정에서 가정주부인 엄마를 향해 ‘우리 엄마는 집에 누워만 있는데, 맨날 TV만 본다.’라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가사 노동 수업은 집안일을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해 보고, 집안일로 인해 힘들어하는 당사자에 공감하며, 집안일이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할 일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활동은 집안일 그래프 만들기이다. 이 활동을 통해 자기 집에서 해야 하는 집안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를 누가 하고 있는지 알아보게 된

다.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누어 주고, 포스트잇 한 장 한 장에 본인 집에서 가사 노동을 적어 보게 한다. 설거지, 밥하기, 장보기, 분리수거, 공과금 납부, 빨래하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숙제 검사하기, 강아지 산책시키기 등 생각나는 것을 모두 함께 이야기하고 포스트잇에 적어 보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가사 노동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특히 육아와 관련된 집안일의 경우에는 더 떠올리기 어려워하므로 다양한 예시를 칠판에 적어 가며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제 앞에서 쓴 집안일 포스트잇을 자기 집 구성원 중 누가 하고 있는지 막대그래프 형태로 붙여 나타낸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가족 구성원, 세로축은 집안일 개수를 의미한다. 실제 같은 포스트잇 한 장이라고 같은 노동의 시간이나 양을 뜻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사 노동의 정도를 가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활동을 할 때는 혹여나 가족 구성원이 드러나 당혹스럽거나 상처받는 학생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엄마 아빠 대신 A, B, C 등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각자 만든 그래프를 모둠원들과 비교해 보며 가사 노동의 분담 정도가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상이한지 살펴볼 수 있다. 어느 가정은 구성원 한 명이 가사 노동을 전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가정

은 비슷하게 나누어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활동을 진행하고 나면, 집에 있는 사람이 ‘노는 어른’이 아니라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다수의 집안 일을 해 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어지는 활동은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의 『돼지책(Piggy Book)』을 읽고 진행하는 가상 인터뷰 활동이다. 이 활동은 핫시팅(hot seating)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구성원 중의 한 명이 작품 속 주인공이 되어 의자에 앉아 청중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인터뷰 형태의 활동을 뜻한다. 『돼지책』은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엄마의 어려움을 그린 그림책이다. ‘너무 중요한 회사’와 ‘너무 중요한 학교’에 다니느라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아빠와 아들들을 향해 ‘너희들은 돼지야.’라고 외치며 가사 노동의 어려움을 유쾌하게 표현했다. 책을 읽고 그림책의 인물들에게 묻고 답하는 가상 인터뷰를 통해 가사 노동의 힘듦에 공감하게 된다.

학생들은 피곳(Piggott) 부인에게 “왜 집안일을 계속 참으며 혼자 다했나요?”, “왜 집을 나갈 때 ‘너희들은 돼지야!’라는 쪽지를 쓰셨나요?”와 같은 질문을 던지거나, 피곳씨와 아이들에게는 “왜 집안일을 하지도 하지 않았나요?”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즐겁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마지막 활동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변화를 실천하는 시

간이다. 본인 가정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림책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지 반추해 보는 것이다. 가사 노동 실태 조사 그래프 등을 살펴보면 ‘집안일은 여성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개인의 문제나 본인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접근한다. ‘우리 집은 아닌데요?’라며 외면할 게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임을 깨닫고, 가사 노동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분담해야 하는 일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수업, 외모 긍정하기

고학년이 될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자기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학생이 많아진다. 사회에서, 미디어에서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신의 몸이나 외모를 소개해 보라고 하면 내 눈은 너무 작고, 뺨살은 통통하고, 머리숱이 부족하다며 나노 단위로 본인의 몸을 평가하는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같은 외모 소개 활동에서 남학생들은 ‘다리가 튼튼하다, 시력이 좋다.’ 등으로 서술한다. 여학생들이 미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자신의 몸을 재단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은 기능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외모 압박 혹은 부정은 여학생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중학생이 되자마자 쌍꺼풀 수술을 하겠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TV 속 트와이스, 블랙핑크 같은 예쁜 아이들의 모습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며 부족한 부분을 찾는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급식을 거르고 거울만 들여다보는 학생들의 외모 압박은 현재 진행 중이다.

외모 긍정 수업은 미술 감상 수업으로 진행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질문을 던지는 화가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의 <나나> 시리즈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작가가 표현하는 의도를 함께 고민

그의 초기작은 캔버스에 붙인 물감 주머니를 총으로 쏘아 흘러내리게 표현하는 ‘슈팅 페인팅(shooting painting)’ 기법으로 그려졌는데, 이를 통해 내면의 분노와 저항심을 표출했다. 그러다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발견하며 조금씩 내면의 평안함을 찾아간 생팔은 <나나> 시리즈를 통해 사회가 만들어 낸 보편적인 여성상, 미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생팔이 만든 <나나> 시리즈에는 ‘미의 여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보편적인 미의 기준과는 영 거리가 멀어 보인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나나를 통해 다양성과 외모 긍정, 그리고 즐거움을 전달하며 모든 여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니키 드 생팔의 작품을 학생들과 함께 감상하며 작가의 의도를 상상해 보고, 감상이 끝난 후 작가처럼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니키 드 생팔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보고 학생들도 이를 오마주하여 자신의 한계나 고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극복하는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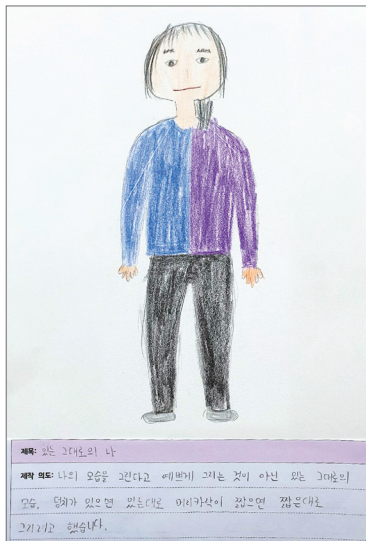


니키 드 생팔, <절제 La tempérance>, 1985
출처: Sprengel Museum⁴⁾

기존 니키 드 생팔의 나나를 모방하여 평면 회화에 채색을 다르게 하는 수준부터 자신이 선택한 재료로 완전히 새롭게 창작해 내는 수준까지, 교사는 최대한 많은 예시를 제시하여 아이들의 창작 의욕 및 표현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한 학생은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제목과 함께

4) <https://www.photo.rmnm.fr/archive/14-524362-2C6NU0ALWZPYX.html>

예쁘게 꾸며 내는 게 아니라 덩치가 크면 큰 대로, 머리카락이 짧으면 짧은 대로 그리려고 했다며 작품 의도를 설명했다.



외모 긍정 수업 후 학생 작품
출처: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한 번의 수업으로 외모 긍정이 실현되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가 정한 몸에 관한 기준과 잣대를 돌아보고, 내 몸을 억압하고 통제하기보다 스스로를 해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랐다. 중학생이 되면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다는 결심 대신에 말이다.

네 번째 수업, 혐오에 대항하기

교실 속 혐오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와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혐오, 혐오 표현이란 단순히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내가 학생 때는 ‘애자야!’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이곤 했다. ‘장애자’에서 앞 글자를 빼고 사용하는 말이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너 애자냐?”라며 비꼬거나 조롱하는 농담으로 흔히 쓰였다. 무언가 실수하는 사람을 장애에 빗대어 혐오하는 동시에, 장애인 자체를 차별하는 혐오가 동시에 드러나는 말이었다.

그럼 요즘은 어떨까. 사회적 약자를 향한 표현들, 차별적인 표현을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그 형태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⁵⁾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사람은 64%에 달한다. 평균 10명 중 6명 이상이 혐오 표현을 경험할 정도로 이제 혐오 표현은 일상생활 속에 만연해 있다.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부터 여성, 이주민, 성 소수자, 난민,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노인에 대한 혐오 표현까지 모든 시민이 혐오

5) 리얼미터 조사/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편). (2019).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292.

표현의 발화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다. 교실도 마찬가지이다. ‘결정 장애, 암 걸릴 것 같다, 김 여사, 맘충, 흑형, 헬린이, 잼민이’와 같은 단어가 농담처럼 던져지고 변진다. 단순히 어떤 단어를 금지하고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넘어 혐오 표현이 무엇이며 왜 문제인지 다양한 상황을 통해 제시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교묘한 혐오를 함께 발견하고, 혐오 표현이 단순히 개인의 기분 나쁨이나 불쾌함을 유발하는 문제를 넘어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불평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선택 게임’ 형태의 수업을 진행한다. 특정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고, 내 선택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식당 사장이다. 그런데 오늘 식당에서 4살짜리 아이가 뛰다가 화분을 깨뜨렸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 1) 역시 아이들이 문제다: “내일부터 우리 식당은 노 키즈 존(No Kids Zone)이다.”
- 2) 아이니깐 그럴 수 있다: “주의 표지판을 만들어 화분 옆에 두어야겠다.”

두 선택지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 위 상황은 약자인 아동을 향한 차별이 교묘히 숨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식당 사장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면서, 경제적 논리라면 노 키즈 존을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혐오가 담긴 여러 상황에 대해 모둠원끼리 짧은 토론을 진행하며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결정한다. 제시된 각각의 상황에는 어린이, 장애, 외모, 성별, 인종 등의 혐오가 숨어 있다.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은 매우 격렬하게 토론했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꽤나 교묘하게 숨겨 놓았다고 생각한 문제들을 바로 찾아냈다는 점이다. 위의 상황에서도 “아 1번이 안 좋은 거잖아. 1번을 어떻게 주장해.”라며 어떤 대답이 잘못된인지 지적했다. 어른들은 못하는 걸 학생들은 바로 해 내는 걸 보고 조금의 희망을 엿보았다.

모든 상황을 토론했다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 선택을 되돌아보며 혐오와 차별의 순간이 있진 않았는지 확인한다. 식당을 노 키즈 존으로 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동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 어떤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1차 선택에서 선택에 따른 개인 점수가 있었는데, 다시 되풀이할 때는 그 선택에 차별이 있었는지 아

닌지에 따라 모둠(사회) 점수가 깎이게 된다. 그리고 개인 점수와 사회 점수를 비교해 본다. 어떤 모둠에서 개인 점수가 높았더라도 차별적인 선택을 했다면 사회 전체의 점수는 낮아졌음을 확인하며, 이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본다. 별 생각 없이 했던 결정이, 혹은 오히려 합리적이라 여겼던 선택이 누군가에게 차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깨닫고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한다.

이 수업을 하고 난 후 학생들은 더 이상 병신, 장애와 같은 단어를 욕처럼 쓰지 않았다. 일부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짬민이, 게임충, 급식충과 같은 단어를 불편하다고 말했다. 특정 단어를 쓰지 말라는 규제를 하지 않아도 그 단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단어를 썼을 때 누가 차별을 받는지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것이다.

■ 우리의 교실은 더 다채로울 수 있다

성 고정관념, 성역할, 외모 긍정, 혐오 표현을 주제로 했던 네 가지 수업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성평등 관점으로 사회의 각 영역을 바라보고 분석했다. 그림책 『오, 미자』를 읽고 여성 노동 인권을 조망하며, 영화 ‘우리집’을 보고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확장하고 논의했다. 미디어에서 외모 평가와 성적 대상화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하고 건강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학생들이 본인들의 양육자를 인터뷰하며 왜 출산 후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적 맥락을 인식했다. 개인의 의식 변화를 넘어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 변화에 동참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성평등 수업을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시간을 확보하고, 학교와 보호자를 설득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당연함에 균열을 내는 일은 체력과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된다. 계급 불평등, 젠더 간 위계와 억압의

메커니즘을 만 13세 이하의 학생들과 나누기 위해 수준을 조정하고 수업을 구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준비한 수업이 모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또다시 혐오 표현을 ‘농담’처럼 던지는 학생들의 해맑은 표정을 보며 잠시 좌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평등한 교실’로 1년을 지내다 보면 점차 변화가 눈에 보인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대신 마음 맞는 친구와 팀을 구성한다. 갈등이 생겨도 ‘그럴 수도 있지.’라며 이해하는 말을 건넨다. 서로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차별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 도대체 “왜” 그러냐며 끊임없이 질문한다. 교실의 이러한 변화가 사회를 뒤흔들 힘이 되리라 믿는다. 우리의 교실은, 우리의 사회는 더 다채로워질 수 있다. ✱

모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시작하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교육

황 고 운

초등학교 교사,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교사

“선생님, 섹스가 뭐예요?”

“이거 내 성기 사진이야. 너도 보내 줘.”

“왜 맨날 여자애들이랑 놀아, 게이냐?”

“랜덤 채팅에서 만난 오빠예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학교에서 맞닥뜨리는 학생들의 신체, 정서적 변화와 성적 호기심, 학생들을 향한 성적 위협을 수업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난감한 순간들이 온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대학교에서도 정규 교과 과정으로 다룬 적이 없고, 학교 현장에 나와서도 성교육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초등 공교육 내의 성교육 기준이 없진 않다. 2015년 배포되었다가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잠정 폐기된 ‘성교육 표준안’이 그것이다. 교육부가 2년간 6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내놓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을 강화하고, 여성의 성을 임신, 출산을 위한 것으로 서술하며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교육의 질은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 가진 지배적인 관점을 넘어서 수 없다. 결국 건강하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짚어 보고, 교사들이 이 관점을 새로이 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성의 성욕은 더 크다, 참을 수 없다.’ 같은 오래된 통념부터, 여성의 성을 터부시하고 나아가 월경에 관해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문화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갖추어야 다음 세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유용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할 수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¹⁾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성교육이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을 다양하게 다루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신체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성적 권리를 탐구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나와 타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1) 유네스코. (2020).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옮김). https://ahacenter.kr/dat/dat_cat/data/se (원서출판 2018)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²⁾

성교육을 단순히 성기 기능 중심의 교육이라고 여기는 데서 벗어나 어린이의 삶 전반에서 성과 관련해 일어나는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것이 모두 성교육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년 9월 4일). 유네스코 뉴스.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71/1167/page/0?

모두를 위한 성교육

첫 번째 수업, 경계를 지켜요

1) 왜 필요한가

성교육은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한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끼는 방법에 관해 배워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남도 나와 같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배우는 것이다. 경계 존중에 관한 감각은 후에 성폭력 등 경계 침해를 당했을 때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타인의 존재와 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방법인 ‘경계 존중’을 어린이가 잘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갖고 만든 수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세 가지이다.

①사람마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계가 다르다. ②상대의 경계를 모르므로 동의를 구해야 하고, 알고 나면 지켜 주어야 한다. ③상대의 거절을 오롯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계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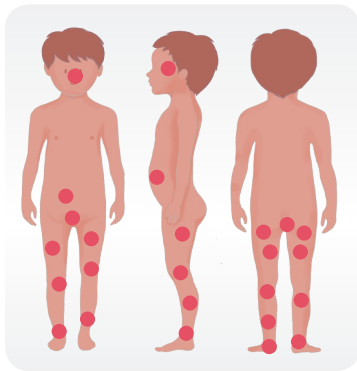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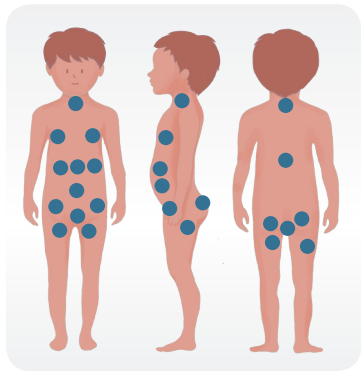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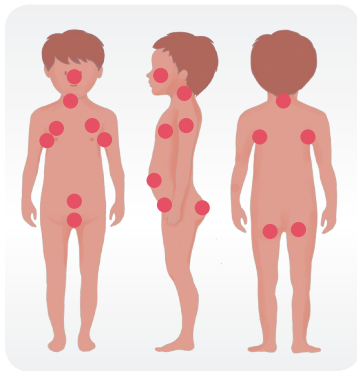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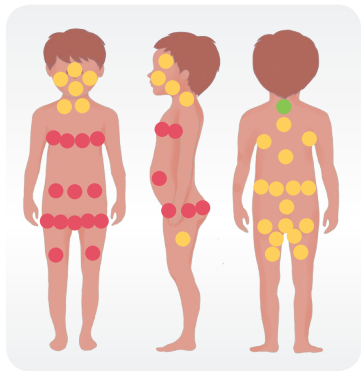
나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이다. 인간관계에 적용한다면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하겠다. 국가 간에는 국경이 있고, 길에는 차도와 보도를 나누는 연석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존재한다고 비유를 들어 어린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2) 이렇게 수업해요

인지 발달 단계상 구체적 조작기의 어린이들은 주로 관찰 가능한 개별 경험에서 지식을 습득한다.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다. ‘멀리서 걸어오기’, ‘여기는 안 돼’ 활동으로 수업을 열면, 스스로의 경계를 눈과 몸으로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멀리서 걸어오기’는 일정 거리를 두고 마주 선 후,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다 불편하면 ‘멈춰!’라고 말하고 중단하는 활동이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경계임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이어서 손이나 어깨 맞대기 등의 활동을 추가로 진행하면, 신체 부위마다 그리고 활동 상대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멈춰!’라고 말한 순간이 친구와 서

로 달랐는지, 달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사람마다 경계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도록 돕는다. 이때 ‘멈춰’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각자가 편하게 느끼는 경계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 때문임을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 ‘친구가 나를 싫어해서, 저 친구가 싫어서.’와 같이 사람에서 원인을 찾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여기는 안 돼’ 활동은 서로의 신체 경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전신 그림을 학생들에게 나눠 주고, ‘친한 친구가 나를 부를 때’, ‘어른이 나를 칭찬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남이 만지면 싫은 신체 부위에 스티커를 붙여 보게 한다. 아무리 스티커를 넉넉하게 주고 시간을 오래 주어도, 어린이마다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어떤 어린이는 엉덩이에 스티커를 두 개만 붙이지만 어떤 어린이는 여덟 개나 붙인다. 상체에 스티커를 잔뜩 붙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체가 훨씬 민감한 몸도 있다. 결과물이 서로 이렇게나 다른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어린이들은 비로소 ‘사람마다 경계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다가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괜찮은지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된다.



서로 다른 학생 활동 결과물
출처: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³⁾

3)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gdgamsung>

이제 경계의 의미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 자동차 구획선이나 육상 트랙, 횡단보도 등을 예로 들며 물건에 구분선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신체나 감정에도 경계가 있다는 점, 이 경계가 나를 지키고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는 선이라는 점을 지도한다.

경계를 이해했다면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이다. 손을 잡고 싶을 때, 안고 싶을 때, 어깨동무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방법을 논의하게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안아도 돼?라고 질문해요.”, “우리 손 잡자!고 말해요.” 등과 같이 발표한다. 이것이 바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고, 경계를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안내해 주면 된다. 이어서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연습한다. “응, 좋아!”라고 동의하는 말을 하는 방법도 있고, 말없이 손을 잡는 방법도 있을 터이다. 반대로 불편하다면 “나 손 잡는 거 불편해.”, “안 잡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음을 이야기 나눈다.

한편, 친구에게 ‘팔짱을 끼도 되는지’ 물었는데 대답이 없을 경우엔 동의한 것인지 아닌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묻는다. 다소 불편했지만 사이가 어색해질까 봐 말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 좀 더 확실한

동의 표현을 나누는 법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경계 지키기 역할극’ 활동을 통해 경계 존중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친구 동생이 귀여워서 볼을 만지고 싶을 때 물어보기, 묻지 않고 팔짱을 끼었을 때 사과하기, 삼촌이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 괜찮다고 표현하기, 고모가 뽀뽀하려는 게 불편하다고 표현하기 등 다양한 상황 중 하나를 골라, 할 말을 적고 연습한 뒤 발표해 본다. 이 활동에는 가족과 친척을 등장시킨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계 존중의 핵심은 ‘동의’에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족을 비롯한 친근한 사이에서는 상황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수업을 하면 어린이들이 “엄마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뽀뽀해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친근한 사이는 대개 서로의 경계를 이미 알고 있거나 위협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어 동의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자신이 경계를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불편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두 번째 수업, 월경을 당연하게

1) 왜 필요한가

월경은 가임기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성 건강 문제이면서 가장 터부시하는 영역 중 하나이다.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불길하게 여긴 역사가 있었기에 월경을 직접 언급하기를 꺼려 생리현상의 ‘생리’라고 부르다가, 이 같은 표현도 피하고 ‘그날’, ‘마법’으로 부른다. 외국도 다르지 않다. 독일에서는 ‘딸기 주간’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선 ‘친구가 왔다.’고 한단다. 또, 프랑스에서는 과거 영국과의 전쟁을 빗대 “영국 군대가 상륙했다.”는 표현을 쓴다고……。 오래 이어져 온 이런 태도가 월경을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생리대를 사면 일부러 검은 봉투에 담아 주거나 생리통을 선생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워하는 상황이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교사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특히 막막해한다. 위에서 말한 문화 속에서, 우리도 거의 배우지 못한 채 자랐고, 교육대학교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성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에 관해 오해나 편견 없이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월경이 자연스

러운 현상이며 당연히 여기고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 아래 월경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는 수업이 필요하다.

2) 이렇게 수업해요

검은 상자에 손만 넣어 촉감으로 상자 속 물건을 맞히는 게임을 통해 수업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상자 속에는 생리대, 탐폰, 월경컵, 월경팬티 등을 넣어 둔다. 모둠원 한 명이 만져 본 촉감을 다른 모둠원에게 공유하여 정답을 추측하게 해 보는 동안 월경 용품의 기능, 즉 폭신한 흡수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학생들이 월경 용품의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월경에 관해 배울 필요가 생긴 것이다. 수업을 진행할 차례다.

성인이 낯설어하는 것과 비슷하게, 학생들에게도 낯선 주제다. 이럴 때는 놀이나 퀴즈로 접근하는 것이 제격이다. ‘생리 모의고사’를 통해 월경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으면 좋다. 이를테면 ‘생리혈과 소변은 같은 곳에서 나온다’ 같은 OX 퀴즈부터 ‘생리혈은 흐르는 맑은 피, 핏덩이, 딱딱한 고체 중 어떤 형태일까요?’ 같은 선다형 문제를 제시한다. 월경 주기, 월경 기간, 생리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월경 지식을 쌓는다. 퀴즈를 진행하기 전에 ‘생리 안 해서 배울 필요 없다.’던 학생은

수업이 끝나고 묻는다. “그럼 우리 엄마도 생리해요?” 아, 이것이 현실이다. 같이 사는 가족이어도 이 정도로 모르고 지내고 있다.

월경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학생들은 월경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월경 현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배울 차례다. 흔히 월경을 고달프고 짜증 나는 일로만 인식하기 마련이다. 물론 사실이지만 부정적으로만 여기는 건 월경을 오래 경험할 여성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한다. ‘월경이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일’임을 안내하는 것이다. 임신을 하면 엄마의 영양분이 태아에게 집중되는데, 월경은 임신하지 않았을 때 자궁을 깨끗이 씻어 내어 여성 인체에서 영양분이 골고루 기능하도록 몸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이다.

월경 전 증후군(PMS, premenstrual syndrome)을 비롯하여 월경 관련 질병도 안내하고, 정보를 얻고 월경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앱도 소개한다. 일회용 패드, 먼 생리대, 탐폰, 생리팬티, 생리컵 등 다양한 월경 용품과 사용 방법도 안내한다. 실물을 만져 보고 물에도 담가 보고, 흡수체가 얼마나 흡수하는지 살펴본다. 여건상 가능하다면 이 과정을 학생들이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속옷에 붙이는 패드밖에

몰랐기에, 오래 앉아 공부하는 학창 시절에 피부가 쉽게 짓무르거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친구가 적지 않았다. 보다 쾌적한 월경 생활을 위해 선택지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더 나아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월경 예절을 이야기 나누며 마무리한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해서 “애 생리하나 봐!”라고 공공연히 말하거나, “왜 이렇게 예민해, 생리하냐?”같이 말하는 게 매너 있는 태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프거나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존중해 주는 태도가 필요함을 이야기 나누는 동안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자란다.

또한 이 수업을 통해 월경 용품은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나면, 국어 교과와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소득층 대상의 월경 용품 보급을 제안하기’ 주제로 설득하는 글쓰기도 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수업, 성폭력(가해) 예방 교육

1) 왜 필요한가

성범죄 가해자는 누구일까? 공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는 구호를 사용하곤 한다. 마치 모르는 이가 거칠게 다가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성범죄 가해자는 가족·친족·또래 등 가까운 관계의 아는 사람인 경우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의 3배 이상이고,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우, 모르는 사람은 고작 5%에 불과하다. 그래서 단순히 ‘주변에 알리고 저항해라.’라는 구호는 현실과 맞지 않고, 약자일 확률이 높은 어린이에게 유효하지도 않은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 수업의 강조점은 두 가지다.

첫째, 성폭력은 대상보다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저학년 특성상 성폭력을 구별하기 어려워하고, 가해자가 자신과 친밀한 사람일 경우 그들의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다는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성폭력을 다룰 때 ‘좋은 접촉 대 나쁜 접촉’으로 성 접촉을 구분하고 있는데, 본 수업에서는 ‘안전한 접촉 대 위험한 접촉’으로 용어를 대체한다. 그리고 위험한 접촉의 판단 기준을 마음 상태

나 신체의 불안 반응으로 제시하고,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언제든지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준다.

둘째, 성폭력 가해에 주목하고 저지하는 것이 성폭력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그간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흔히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려 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아동 청소년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되기 쉬운 위치이기 때문이지만, 이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내가 저항하지 않아서……’, ‘내가 상대를 따라가서……’처럼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괴로워하며 성폭력 사실을 고발하지 못해 왔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가해를 예방해야 한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피해 상황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문화를 지적하고,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주목하기, 가해 행위가 무엇인지 알기, 가해 행위를 목격했을 때 방관하지 않기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 다만 성폭력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원치 않는 성폭력을 겪을 경우 대처하는 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겐 잘못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두려워서 즉각적으로 행위를 거절하지 못하거나 주위 어른들에게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도록 한다.

2) 이렇게 수업해요

같은 동작이지만 표정, 자세 등으로 미묘하게 다른 상황을 보여 주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게 하며 수업을 열 수 있다. 이를테면 두 사진 다 꺼안고 있지만, 한 사진에선 한 사람이 움츠러든 표정과 자세를 보이고, 다른 사진에선 평화로운 표정으로 기뻐하며 서로를 안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각의 사진을 비교해 보며, 경계를 존중하는 접촉은 ‘안전한 접촉’, 경계를 존중하지 않아 기분이 나빠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위험한 접촉’임을 이해하게 한다. 즉, 몸과 마음의 신호를 알아차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 몸을 만지거나 보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보라고 할 때가 성폭력 상황임을 알게 한다.

사례를 통해 안전한 접촉인지, 위험한 접촉인지 판단해 볼 수 있다. 의사가 청진기로 진찰할 때, 이모가 목욕하는 내 몸을 씻길 때는 성폭력 일까요? 하고 묻는 것이다. 정답은 뭘까? 안전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다. ‘날 낯게 해 주려는 거구나 편안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픈 곳도 아닌데 왜 자꾸 만지지? 이상해.’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싫다고 말하거나 믿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알려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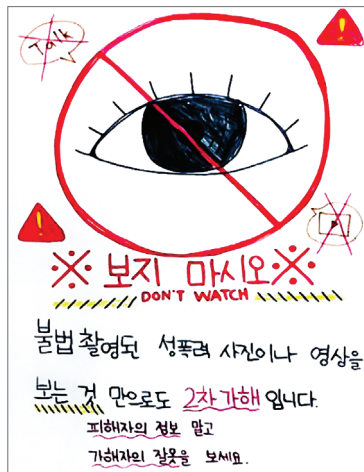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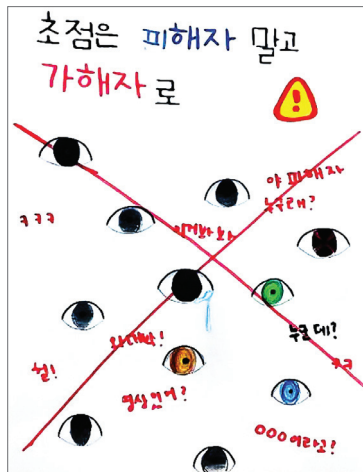
다양한 성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며 경계를 넘을 때는 ‘동의’가 중요함을 주지시키는데, 이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될 수 있는 가해 행위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친구와 접촉하거나 타인의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일들은 흔히 일어난다. 사실은 명시적이고 흔쾌한 동의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음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일상 속에서 성폭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학생들이 사전에 막을 수 있다.

3) 더 나아가기: 디지털성범죄 예방하기

60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할까? 실제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단체 채팅방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놀라웠던 점은 학생들이 이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온라인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고, 재미를 위해 사진을 합성하는 데에 익숙해져서 즐거운 놀이로 여기고 온라인으로 사진과 영상, 링크를 주고받다 보면 어느 순간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공유할 때 주의해야 할 태도, 즉 SNS 예절부터 차근차근 짚어 불법 촬영 범죄까지 이야기해야 학생들이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촬영 가해 예방 포스터 만들기(2019)

출처: 강선초등학교 6학년 수업 사례

‘친구와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도 될까?’, ‘엄마가 내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 ‘모르는 사람이 배경에 찍힌 사진을 업로드하고 싶을 땐 어떡하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를 ‘동의’에 초점을 두고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SNS 예절 수준의 상황부터 점차 확대해 가며 이야기 나누면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역시 개인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일상의 안전을 깨뜨리는 인권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역시 ‘조심했어야지, 그래서 찍힌 게 누구래?’ 처럼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가해자 잘못’에 초점을 맞추어 가해 행동을 저지하는 선량한 시민 편에 서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공식적으로 교실에서 교사와 함께 ‘방관자 되지 않기’에 관해 공부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퍼 나르거나 같은 반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고 이를 품평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 평소에는 친구 사이가 나빠질까 봐 말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동의에 관해 배웠다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기 쉬워진다. 방관자가 되는 걸 막는 것이다. 친구들이 호응해 주지 않는다면 성폭력이 될 수 있는 작은 신호들은 자라나기 어렵다. ‘방관하지 않으면 가해도 자라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모두가 안전한 학교: 학급 운영과 학교 문화

성평등 수업이 끝난 뒤에, 바로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비로소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 성평등한 교실을 위해 교사는 어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성평등한 교실’이라면 학생들이 나답게 있을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필수적일 것이다. 일상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는 교실을 만들어 가기 위한 꿀팁을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성평등한 교실을 위한 꿀팁

1	남자와 여자로 구분 짓고 역할을 나누지 않아요.
2	학생의 경계를 존중해 주세요.
3	외모 대신 행동을 칭찬해 주세요.
4	성평등한 학급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5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을 하지 말아 주세요.
6	다양한 양육자를 인정해 주세요.
7	교사 문화를 먼저 성평등하게!

1) 남자와 여자로 구분 짓고 역할을 나누지 않아요

“출석 번호대로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앞 글에서 언급한 대로, 이 구분에 따르다 보면 짝꿍도 남녀로 짓고, 체육 시간에도 무심코 남녀 팀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의도치 않게 성별 대결 구도가 돼 버려서 교사가 곤란함을 겪는다. 이런 구분이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5년 남짓의 시간 동안 계속된다면, 학생들은 점차 여자와 남자가 마치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서로 다른 존재라고 여기게 되지 않을까? 사실 많은 연구는 집단 내 개인차가 집단 간 차이보다 크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남녀가 정말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교실 속 역할에도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체육부장은 남학생이, 환경부장은 여학생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심코 생각하면 ‘여자가 아이가 꿈꿨고, 몸 쓰는 일은 남자아이가 더 잘해서’라고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교사나 보호자들에게 익숙한 성역할을 어린이들에게 기대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 보면 어떨까? 사실 엇비슷하게 발달하고 있는 초등학교생인데, 꾸미기나 섬세한 일은 여학생들이 잘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동 시범을 보이는 건 남학생이 잘할 거라는 어른의 성 고정

관념에 기반해 역할을 맡기는 일이 많아진다. 여자아이가 얌전하지 않으면 걱정하고, 남자아이가 활발하지 않으면 걱정한다. 여자아이가 글씨를 못 쓰면 염려하고, 남자아이가 운동을 싫어하면 염려한다. 이런 인식은연중에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고, 어른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고학년쯤 되면 서로 무척 다른 집단처럼 보이는 데엔, 보호자나 교사처럼 가까운 성인들의 고정관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모른다.

‘남자애들은 단순해서 싸우고 금방 화해하는데, 여자애들은 예민하고 교묘해서 대하기 어려워.’ 교사라면 한 번쯤 하거나 들어 본 말이다. ‘남자애들끼리 같은 모둠을 하면…….’, ‘여자애들은 체육 시간에…….’ 뒤에 이어질 말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모르는 사이에 어린이에게 전해지진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뇌는 구별 짓고, 범주화한 후 그 범주에서 벗어난 사례는 쉽게 왜곡하거나 잊어버리는 성질을 가졌다. 어린이가 저마다 가진 다채로운 특성을 알아봐 주려는 번거로운 노력 대신, 고작 둘로 나눈 범주에 기대어 생각 하는 일은 위험하다.

2) 학생의 경계를 존중해 주세요

경계 존중 수업 전후로 가장 중요한 건 교사가 일상에서 먼저 학생들에게 경계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학생들은 교사, 양육자로부터 존중받는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한다. 학생들의 경계 존중 요구를 ‘버려장머리 없다.’고 생각하는 성인이 많다. 잘 안 받아들여졌으므로, 본인이 거절해도 되는지 잘 모른다. 체육 활동 시 신체 접촉이 있을 때, 학생의 개인 사정을 물을 때, 또래 관계에 관해 대화 나눌 때 교사가 먼저 경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체육 활동 시범을 보일 때 당연하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는 대신 허락을 구하고, 학생의 허락 및 거절을 오롯이 수용하는 장면을 명시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생들이 ‘자신도 경계를 존중받지 못했을 때 어른에게 거절할 수 있다.’는 감각을 배울 수 있다. 학생의 프라이버시인 가정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할 때도 학생이 원치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좋은 안내를 먼저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사소한 제안만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의사를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교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급 홈페이지나 SNS에 학생의 사진을 올릴 때는 동의를 구해

야 한다. 흔히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기 초에 보호자의 동의 서명을 받아 두는데, 정작 학생의 의사는 묻지 않고 단체 사진을 공유하는 일이 많다. 찍기 전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 동의 얻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게 되면 다시 동의를 구하고, 학생이 외부 공유나 게시를 원치 않으면 그 의견을 수용해 주면 어떨까? 그렇게 먼저 존중 받아 본 학생들에게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동의의 감각이 자랄 수 있다.

3) 외모 대신 행동을 칭찬해 주세요

가끔 어른들은 어린이를 이렇게 칭찬한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예의까지 바르네?”, “역시 글씨도 깔끔해, 얼굴만큼 예쁘네.” 외모는 타고난 부분인데 칭찬도 평가의 일종이라서, 타고난 것을 칭찬하는 일이 당사자에게도 주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사자는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주변인은 이를 비교로 느끼고 불필요한 열등감을 가질지 모른다. 청소년기는 자아 형성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고유한 특성을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주면 어떨까? ‘예쁘다, 잘생겼다.’와 같이 외모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꼼꼼하다, 끈기 있다,’ 등과 같이 행동과 태도의 성장에 주목해 보면 좋겠다.

4) 성평등한 학급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3월이면 교실마다 학급 안내판을 만든다. 남녀 학생 수와 함께 학급 단체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성별 인원이 꼭 필요한 정보일까? 성별과 개인 정보인 학생들 얼굴 대신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 원칙을 넣어 보면 어떨까? 그 학급 운영 원칙 중 하나로 성평등한 학급을 지향한다고 안내하여 담임교사가 이를 중시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교실 내 성평등 문화에 관심을 기울인다. 고학년은 토의를 통해 학급 규칙을 직접 만들어 가기도 한다. 이때에도 교사가 학급 구성원으로서 성평등을 중시한다는 의견을 내면, 성평등은 학생들 스스로 1년간 주의 깊게 다루는 가치관이 된다.

5)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 혐오 발언이 교실 안에서 표현되었다면, 침착하고 단호하게 즉각 개입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목격한 다수의 학생에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구나.’라는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로 진지하게 지도할 때는 무슨 의미인지 되묻는 것도 방법이다. “OO을 무슨 의미로 사용했지요? 왜 욕설이나 비하처럼 사

용하나요?” 명시적으로 행위에 이름을 붙여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방법도 시도할 수 있다. “지금 00라고 했는데, 이는 00이라는 존재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당사자가 들었다면 무척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나아가 교실에서 일어난 소수자 대상의 혐오 표현을 주제로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더 좋다.

6) 다양한 양육자를 인정해 주세요

엄마의 양육 부담은 당연하지 않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보호자가 필요할 때 흔히 엄마를 호출한다. “엄마께 내일까지 싸인 받아오세요~.” 이렇게. ‘주로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보통, 일반적으로’보다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기로 했으니까, 말 한마디에도 신경을 써 보기로 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고려하여 엄마, 아빠, 학부모보다 폭넓은 ‘보호자, 양육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비슷하게 녹색어머니회, 마미캡처럼 엄마들이 학교에 와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던 관행에 따라 붙인 이름도 녹색교통봉사대, 안전지킴이 등의 용어로 바꿔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학부모 상담에는 보통 어머니가 많이 방문한다. 어느 학교나 비슷한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가 ‘양육과 교육은 어머니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 방문을 앞둔 아버지가 있다면 어떻게? 실제로 상담해 보니 아버님들은 ‘유난스러운 아버지로 여겨지진 않을까?’, ‘회사에 아이 담임 면담하러 간다고 하면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진 않을까?’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 취지를 설명하고, ‘보호자 상담’으로 명명한 뒤 ‘2학기엔 아버님께서 오세요!’ 혹은 ‘1학기 때 안 오셨던 양육자분이 와 주세요.’라고 제안한다. “우리 아빠 바빠서 못 오는데요?” 했던 학생들이 기뻐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아버님 혹은 다른 양육자분이 ‘아이에게 더 관심 가져야겠네요.’라고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단, 1인 양육 가정인 학급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계획하고 안내해야 한다.

학기 초에 쓰는 학생 기초 조사서 한 장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예전에 주로 쓰던 ‘학부형’이라는 단어는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이었다. 어머니보다도 집안의 남자인 형이 보호자로 불렸던 것이다. 이제는 학부모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는 엄마와 아빠가 아닌 보호자를 포괄하진 못한다.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보호자’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연락할 보호자란을 새롭게 만들었더니, 어머니 아닌 양육자가 우선 연락 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1/5가량 된다. 학생 일로 연락 드릴 때는 으레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양식을 바꾼 뒤로 반성하고 바뀌 나가는 중이다. 본인은 ‘부모’가 아닌 양육자인데 조금 더 편하게 기초 조사서에 기입할 수 있었다고 상담 때 말씀해 주신 보호자분도 계셨다.

7) 교사 간 문화를 먼저 성평등하게!

학교에서는 학생을 함께 기른다. 성평등한 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동료 교사와 함께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먼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실 문을 열고 다른 반 선생님이 이런 부탁을 하시기 때문이다. “짐 옮기게 남학생 5명만 보내주세요.” 남성 일반이 여성 일반보다 근육이 크고 힘이 센 것은 ‘차이’이지만, 학교에서 충분히 함께 분담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짐 운반 등을 ‘남자의 일’로 여기는 것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별’적 생각이다. 이럴 때 그냥 웃어넘기기보다 동료 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짐 옮길 수 있는 학생 5명 손 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하곤 한다.

아래는 내가 교직 생활하는 동안 들었던 말들이다. 어떻게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을지 궁리하며 읽어 보자.

“창고 책상 옮기게, 체육대회 준비하게 남교사들 모여 주세요.”

“어리고 예쁜 선생님이라 인기순으로 뽑힌 거예요, 시상 보조를 맡아 주세요. 교장 선생님의 퇴임식 축하무대 해 주세요.”

“정보부장, 체육부장은 아무래도 남자들이 해야지.”

“김 선생, 화장 안 하면 아이들이 안 좋아해요.”

“정 선생, 언제 결혼해요? 박 선생, 언제 아이 낳아요?”

내가 속한 조직에서, 언어문화를 바꾸자고 제안해 보자. 어렵다면, 웃는 등의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천천히 변화는 일어난다.

성평등한 교실 속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성장

위에서 말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학생들에게는 어떤 성장이 있을까?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변화는 분명히 일어난다. 우리가 성평등 수업과 성평등 학급 운영으로 목격한 변화를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조금은 뻔뻔하게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나답게 수업’의 놀라운 효과이다. 내 글씨체 원래 이런데 뭐! 운동을 안 좋아하는 이 모습 이 나인걸? 주변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편안한 마음이 자주 보인다. 둘째, 차별을 인지하고 정화한다. 학생들이 한 번 차별이 무엇인지 배우고 나면 다른 차별에도 좀 더 민감해진다. 평등하게 존중한다는 감각을 일깨우고 나면 교실 속 차별 언행이 잘 보이고 불편하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담임교사가 지적하지 않아도 학생 간에 조심스럽고 자유롭게 대화 나누며 차별을 스스로 정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 셋째, 외모 비하와 그로 인한 사소한 다툼이 줄어든다. 친구를 놀리기 위해 외모를 비하 하는 경우가 많다. 장난으로 그러는 거라 화를 내지도 못하는 사이에 기분은 나빠지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다툼이 잦아진다. 외모를 평가하지 않기로 약속한 학급에서는 외모를 농담으로 삼지 않고 서로 조심하기에, 흔히 담임교사에게 와서 토로하던 작은

불만이 줄어든다. 넷째, 차이에 따른 배려로 이해심이 자란다. 성교육 수업 등을 통해 서로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해해 주는 대화를 해 본 학생들에게는 존중의 씨앗이 자란다. 성별이 나와 달라서 몰랐던 것들에 관해 경청하는 경험은 이해심을 자라게 한다. 다섯째, 성별로 가르치지 않고 함께 어울린다.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이……’하던 표현을 줄이고 성별보다 각자의 특성을 살리는 모습을 자주 보아온 학생들은 놀랍게도 함께 어울려 즐겁게 지낸다. 공차기에 익숙지 않은 여학생들에게도 규칙을 바꾸어 기회를 자주 주면 함께 축구 게임을 하고, 교실 내 놀이 문화도 세심하게 살피면 성별 구분 없이 어울리게 할 수 있다. 여자/남자가 아니라 ‘우리 반 친구 ○○’로 서로를 바라보고 성별 간 경계를 허물고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해 나간다. 아무래도 사회의 다양한 성차별 이슈를 다루다 보니, 학생들이 교실 밖 세상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학생들이 평등과 존중의 감각을 갖고 세상과 자신을 연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평등 교육은 분절적이고 지엽적인 지식 공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세계시민 교육임을, 수업해 나가며 깨닫는다.

■ 나가기, 혹은 나아가기

초등학생 대상의 성평등 수업을 소개했지만, 이건 결국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상 속 성인지감수성에 관한 이야기다. 성인지감수성은 많은 사람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다. 자칫하면 ‘치우쳤다, 편향적이다, 갈등을 조장한다.’는 평을 듣기 십상이라 늘 균형에 대해 고민한다. 하지만 수업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이것은 인권에 관한 논의다. 인권의 한 부분인면서 인권 그 자체이기도 하다. 곧 학교 폭력예방 교육이자 인성 교육, 관계 교육이라고 믿는다.

더디지만, 학생들은 종종 기대를 뛰어넘는다. 그때의 성취감을 어린이를 곁에 둔 어른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수진, 황고운

어린이들이 각자의 색을 잃지 않고 자라 세상을 뒤흔들 꿈을 꾸길 바라는 교사들.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www.outbox.co.kr)를 운영하고 있다. 5시까지의 초등학교 교사로, 퇴근 후에는 아웃박스 팀원으로 지내며 성평등 수업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책 『예민함을 가르칩니다』, 『열두 달 성평등 교실』, 『소녀들을 위한 내 마음 안내서』를 함께 썼다.

Diversitas List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종훈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진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슬기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판은
불변법칙인가, 가변법칙인가? _ 서명원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법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강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아낸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윤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훈

12호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을 꿈꾸며 _ 민지영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_ 양희연

13호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다양한 시선들 _ 이대현
어디어장의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읽기 _ 김지형

14호

말들의 노래: 삶과 시간을 켜는
흑인 여성들의 음악, 신화, 시 _ 류아정
미국법학으로의 산책 개인의 공간과 국가의 역할 _ 정인영

15호

고대의대 초기역사에 담긴 박애정신과 다양성 _ 이현정
죽음 후 삶이 시작된다 _ 이수현

16호

생활론: 재구성된 일상의 다양성 _ 조경숙
실내악, 다채로운 울림이 공존하는 음악공동체 _ 조은아

17호

다양성을 통해 이뤄 낸 고려의 최전성기 _ 김송수
텔레비전과 다양성: TV가 전달하는 다양한 가치들 _ 김설아

18호

장애의 사회·문화적 구성: 다문화 교육과 장애 _ 조주희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 가치 현실성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 _ 장대익

다양성위원회 홈페이지에서 Diversitas PDF 버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diversity.korea.ac.kr/diversity/research/booklet.do>



Diversitas

권호 19호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www.saisiot.co.kr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